

《유해로운 배방오체계의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1》 가입

국제해사기구주재 조선상설대표부 일군들이 주체 109(2020)년 8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유해로운 배방오체계의 통제에 관한 국제협약, 2001》에 가입한다는 문건을 국제해사기구 해당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배방오체계협약은 2001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외교대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9월에 발효되었으며 현재 이 협약가입국수는 90개에 달한다.

협약에서는 배의 방오칠감에 포함된 유기석화합물이 사람의 건강과 해양생물의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마른 상태의 방오칠감 1kg 당 석함유량이 2.5g을 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배방오칠감에 의한 해상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을 비롯한 나라의 해상환경보호법규들에 배방오칠감통제와 관련한 규제내용들을 반영하였으며 총톤수 400 이상의 국제항해배들에서 이를 철저히 리행하도록 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왔다.

나라의 칠감생산단위들과 연구소들에서도 유해작용이 전혀 없는 무기질칠감 《현무》를 개발하여 조선선급협회의 형승인을 받아 여러해째 많

은 무역집배들에 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 그의 우월한 방부식, 방오기능으로 하여 국내배무이기관들에서 대호평을 받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제 22 차 제네바 국제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에서도 금메달을 받고 영국과 중국, 도이칠란드 등 여러 나라들에서 특허로 등록되는 등 세계선박건조업계와 산업건축도장업계에서도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유해배방오체계로부터 나라의 바다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서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이번에 배방오체계협약에 가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방오체계협약가입은 국제해사기구의 성원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법규들을 성실히 리행하여 세계해상안전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의 발현이다.